

# “電氣工事海外協力推進과 展望”

## Propulsion & Prospect of Overseas Cooperation in Electrical Construction Work



沈 相 禹

韓國電氣工事協會 會長

### 1. 序 論

當協會는 國際化時代에 副應하여 이웃나라와의 理解增進과 날로 發展하는 電氣工事 施工部分에 關한 技術 및 產業情報를 迅速히 交換함으로써, 業界의 技術向上을 促하고 國際競爭力을 提高하여, 海外進出基盤을 造成, 1980年度初부터 本格的으로 海外協力事業을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第1段階事業인 基盤造成의 一環으로 市場調査를 兼한 아시아電氣工事業界 巡訪事業으로 부터 始作되었으며 특히 大部分의 Asean 地域이 韓國에 比할때 經濟, 產業構造面에서, 極히 補充的이나, 다른 한편 相互 依存의 發展을 指向할 수 있다는 여러條件을 감안 Singapore, 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日本, 台灣, 香港등의 各國을 相對로 地域國家間에 電氣工事 技術改善으로 國家福祉事業을 推進하고, 域內發展을 圖謀키 위하여, 建設, 電氣分野 輸出에 있어서는, 一次的으로 中·後進國地域에 局限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ASEAN市場에 擴大, 深化가 試圖되어야 한다.

以上과 같이 볼 때, Asean 地域이 크나큰 潛在力을 갖고 있으며, 韓國이 地域內 經濟統合을 推進함에 있어서 建設進出이 多樣한 形態의 經濟協力을 수반할 수 있다는 利點등을 고려하여 보다 能動的으로 새로운 視角으로 建設市場의 擴大에 努力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本稿에서는 優先的으로 ASEAN建設市場 接近을 爲해서 Singapore를 除外한 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 電化率이 매우 不振하다는 點과 高級빌딩 建設과 수반 電氣工事業에 對한 Project 別로 情報蒐集, 妥當性 檢討 등을 通하여, 情報매개체의 役割을 擔當하고자, 當協會에서는 '80年度 下半年부터 아시아전기공사연합회 (AFEEC= Asean Federation of Electrical Engineering Contractors Convention & Exhibition) 結成을 推進, 會員國으로서의 經濟外交를 強化하고 最近 Asean 諸國이 實施하고 있는 自國化政策을 韓國企業에게 多少신속적으로, 適用케 유도할 수 있게끔 情報체係의 一元化에 重點을 두고 보다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록 具體的인 各種 建設需要, 金融調達, 競爭關係등을 면밀히分析, 推進하여 촉매역할을 하여야 하는 이 時點에서,

## 2. 本 論

當協會는 不斷한 海外協力事業을 推進한 結果 1981年 9月15日에서 9月23日까지 9日間 Singapore에서 開催되는 AFEEC '81大會 및 展示會에서, 韓國電氣工事協會를 正會員내지 準會員으로 '82年 3月 AFEEC運營委員會時에 Asean 政府의 承認與否에 따라 AFEEC의 一員이 可能해졌으며 Asean 5個國(Singapore, Thailand, Malaysia Philippines)을 비롯 美國, 英國, 호주, 뉴질랜드 및 香港등 10餘個國의 電氣工事業界의 重鎮들이 한데 모여, 相互關心事와 協力方案을 討議하였으며, 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의 全般的인 電化率이 5%~10%以內에 머물고 있어, 韓國專門電氣工事業體의 進出可能性이 어느地域보다도 높은事實을 認知할때 Jointventure 또는 Consortium을 통한 受注 展望이 確實視되고 있었다는 點이 큰 成果라 아니할 수 없다.

그後 市場多邊化라는 切實한 命題下에 '82年 8月 26日 台灣과 同年 9月 25日 香港과 電氣工事協力協議會를 結成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趣旨는 大韓民國과 中華民國, 香港間은 오랜 支邦으로써 善隣關係를 유지해온바, 當業界에도 協力關係의 定立이 대두되어, 韓國전기공사협회와 대만 및 香港電氣工事協會間에 民間外交 및 業界의 進出을 도모키 위하여 電氣工事業協力協議會를 設置, 施工技術, 產業情報交換 및 相互訪問을 통하여 迅速한 情報入手 및 親善을 增進시킴으로써 業界의 發展은 물론 나아가 國家 및 域內發展을 期하고자 하는데 있다.

協力內容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i) 兩業界 關聯 다음과 같은 技術 및 產業情報를 相互交換한다.

新開發 施工技術, 電氣工用 機資材 및 海外 電氣工事市場情報 等

ii) 電氣工事制度, 施工規程, 入札制度 등 電氣工

業 關聯制度 研究

iii) 協會事業報告書, 會誌, 新聞, 各種 統計資料 및 技術關係書籍 등 刊行物 交換

iv) 相互訪問, 關心事 討議 및 業界視察을 通하여 理解를 增進하고 親善을 圖謀한다. 等の 內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同年 10月 美國電氣工事協會(NECA=National,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와 協力方案을 推進함에 따라 1983年 3月 1日자로 當協會는 美國전기공사협회 會員으로 正式加入 되었으며, 會員加入과 同時에 美國에서 널리 通用되는 “標準電價單價指針書” 및 週刊誌인 NECA誌를 구독하고 있는 바, 그 內容으로서는 全般的인 電氣工事業解說, 電氣技術 및 安全소개, 發注者와 施工者 사이의 標準會議書指針等 發電所建設工事의 組織 및 發注傾向등 廣範圍한 전기공사에 對한 事項들이 収録되어 있다.

以上에서 밝힌 東南亞諸國 및 美國과는 좀더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相互交流를 通하여 新開發施工技術, 電氣工用機資材 및 海外電氣工事業 關聯制度 등 多角的인 方面으로 폭 넓게 協議를 하게 되었으며 對美洲地域進出 및 第3國共同進出의 교두보를 確保하게 되었다.

또한 海外工事入札時 過多競爭을 피하고 公正價格으로 公正한 利益을 追求하기위한 協力方案이 는 의되어 向後부터는 善意的인 경쟁을 통한 技術提高 및 施工技術向上에 注力할 것에 合意를 보았다.

그後 繼續的인 海外協力事業에 拍車를 加하여 1983年 7月 韓·中 電氣工事協議會, 第1回SEPEX 展示會(First Seoul Electrical Products Exhibition) '83年 9月 AFEEC '83大會 및 展示會參加, 韓·印尼協力協議會, 韓·香港協力協議會, 83年 10月 韓·日協力協議會推進 等 Tempo 빠른 各國과의 協議會를 開催 또는 推進함으로써 民間外交의 提高 및 韓國電氣工事協會의 Image를 부각시켰고, 또한 高度化된 韓國技術陣의 소개, 機資材의 品質優秀性등을 널리 과시 하였다.

여기에서 特記할만한 事項으로서는, 日本과의 政治, 經濟的인 미묘한 關係에서 公式的인 協力協議會가 없어, 當協會의 不斷한 交涉끝에 當協會와 組

織面에서나, 管理面에서 아주 비슷한 性格을 띄고 있는 “全日本電氣工事工業組合連合會”와 對座하여 兩國의 電氣工事業界 現況과 制度등을 比較, 檢討함으로써 相互間 正規的인 協議會가 곧 結成되리라는 確信을 얻은點이 큰成果이며 원만히 公式的인 協力關係가 이루어질 時, 輸出戰略에 對한 助言 및 經營技術指導등 Asean 諸國의 經濟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韓國의인 經驗을 토대로한 經濟, 技術協力は 兩地域經濟關係를 돈독히 할 수 있는 機會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當協會에서 推進하였던 各國과의 協力協議會 및 大會參加事項들을 列舉하면 下記와 같다.

國際協力關係日誌

順番	日 程	協力協議會名및大會名	主催國
1	80. 4. 25 ~ 5. 1	第1次 日本電設工業展 參觀	日本
2	81. 1. 15 ~ 2. 4	東南亞電氣工事業界巡訪	
3	81. 4. 25 ~ 5. 4	第2次 日本電設工業展 參觀	日本
4	81. 9. 15 ~ 9. 23	AFEEC '81 Singapore 大會	Singapore
5	82. 2. 28 ~ 3. 19	歐羅巴電氣工事業界視察	英國
6	82. 5. 22 ~ 5. 28	第3次 日本電設工業展 參觀	日本
7	82. 8. 26	韓·中 전기공사協力協 議會	대한
8	82. 9. 25	韓·香港 “	韓國
9	82. 10. 29 ~ 11. 24	美國전기공사업체視察및 韓·Hawaii電氣工事協 議會	美國
10	83. 7. 12	第2次 韓·中電氣工事協 力協議會	韓國
11	83. 7. 9 ~ 7. 17	第1次 SEPEX 개최	韓國(여 의도광장)
12	83. 9. 22 ~ 9. 26	AFEEC '83大會 및 展示 會參加	태국(Ba ngkok)

13	83. 9. 27	韓·印尼電氣工事協力 協議會	韓國
14	83. 9. 29	韓·香港電氣工事協力 協議會	香港
15	82. 10. 3	韓·日 協力協議會結成 推進	日本

아울러 當協會에서는 海外施工法人을 積極推進, DRAFT가 完了되었으며, 그 內容으로서는 專門電氣工事業者가 共同出資하여 資本, 技術 및 人力面에서, 國際的規模의 專門業체를 設立하여 海外工事を 受注, 施工함으로써 電氣工事業을 育成, 發展시키고자 假稱(株)國際電氣建設이라는 海外法人設立 및 具體的인 運營計劃을 세워놓고 있으나 設立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 3. 向後展望 및 結語

中東景氣의 減退以後 東南亞諸國과 호주등이 外國企業의 進出규제를 強化하고 있어, 國際入札競爭에서 熾烈한 競爭으로 이地域에로의 突破口를 찾으려는 國內企業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反面에 開發 Project가 活潑히 發注되던 產油國들의 油價引下와 生産資源의 價格下落으로 開發計劃이 多少 위축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들 資源保有國의 開發 Project와 그에 따른 建設工事は 繼續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Project를 繼續推進함에 있어 發注國들은 最少限의 예산과 공사비를 들여 이들 Project를 效果의으로 完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고 自國化施策을 펴나가게 됨으로써 海外建設工事的 受注興件과 環境이 크게 變化되고 있다.

이러한 現狀況에 비추어보아, 當協會의 重點推進事項은 기존協力關係 當事國間에 보다 次元높은 技術協力 産業情報交換을 매체로 民間外交側面에서, 積極的인 촉매役割의 一翼을 擔當하는 한편 政策當國의 強力한 支援策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支援策으로서는, 技能工養成, 언어장벽에 따른 人力開發, 經營合理化 및 財務構造의 改善을 通

하여, 競爭力提高, 合作形態의 進出, 韓國産 機資材의 國際化가 하루속히 이루어 짐에 따라 現地國內需要創出, 機資材輸出등으로, 고용증대를 유발시키고, 企業의 活性化에 더욱더 拍車를 加할 것이다. 끝으로, 建設輸出支援体制의 再整備가 수반되어야 한다는點등이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假稱(株) 國際電氣建設과 같은 機構가 있어 窓口의 一元化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關聯하여 中·長期的으로 專擔機構의 設置 및 專門化가 바람직하다.

즉 亂立되어 있는 海外工事受注를 정비하여 劃一的이고 一貫性있는 彈力的인 窓口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한例로, 海外企業들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큰 問題인 現地金融(Project Financing)問題들을 解決하고, 이에 副應하여 海外建設銀行의 設立과 海外建設基金의 適切한 活用, 그리고 이들간 業務化를 통한 有機的이고 体系的인 機能의 確立을 提案하고자 한다. \*

• 協會消息 •

## 83年度 電氣分野 調查研究發表會 盛了

### 11. 24 本協會 會議室서, 5 個課題發表

83年度 電氣分野 調查研究發表會가 11月24日(木) 下午3時부터 本協會 大會議室에서 金榮俊會長, 金鍾珠副會長, 禹亨疇·李承院서울大教授, 池哲根 大韓電氣學會 會長, 金善集東洋物産(株)社長등 電氣界 人士 80余名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電氣分野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가장 切實히 要請되는 主要課題를 選定하여 關係專門家에 研究를 委嘱 그 研究結果를 發表하게되는 이날의 發表會에서는 任達鎬 漢陽大 教授의 「重電機의 設計에 따른 磁界分布 特性 解析을 爲한 基本 理論의 適用方法」, 李慶植和仁엔지니어링代表의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事故와 그 對策」, 白龍鉉仁荷大 工大 教授의 「非常 電源設備 實態 및 問題點과 改善方案」, 吳昌錫韓國 電氣通信研究所 電氣分所長의 「우리나라 主要 輸入 代替品의 問題點과 對策」, 金恩培檀國大 工大 教授의 「感電事故 現況 및 豫防對策」에 대한 研究結果 發表가 있었다. 豫定時間 보다 約 1時間이나 더걸린 이날 場內의 분위기는 자못 진지했으며 發表會가 끝난후 參席者들에 論文集이 증정되었으며 리셉션이 개최되어 화기애애한 가운데 對話가 오고갔다.



진지한 調查研究發表會 光景